

‘코로나 고용쇼크’...30대·서비스업·비정규직 직격탄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 분석

고용 충격 업종별·계층별로 비대칭적
실업급여 지급액·건수, 일시휴직 폭증
상시 방역체계·사회안전망 확충 시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광주·전남지역 '고용쇼크'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30대 청년층과 서비스업, 비정규직의 고용시장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고용충격이 업종별·계층별로 비대칭적인 영향을 주면서 고용 안정성이 떨어

진 것으로, 사회안전망 확충과 비대면산업 육성 등 일자리의 양적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이준범·이종현 과장)이 20일 내놓은 '코로나19 이후 광주전남지역 고용동향 및 특징' 연구조

사 보고서에서 제기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령별 취업자 수를 분석한 결과 광주는 30대가 전년 동기 대비 1만200백명이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전남은 30대와 50대가 각각 6100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광주의 경우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분야에서 5400명이 감소했으며 건설업과 제조업도 각각 3900명, 2300명 감소했다.전남 지역도 사업·개인·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업 분야에서 가장 많은 1만4300명이 감소했다. 다만 광주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경우 배달음식에 대한 수요증가로 취업자수가 증가했으며 전남도 농림어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증가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광주와 전남 모두 임시·일용근로자 등 비정규직이 감소하고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특징을 나타냈다. 특히 광주의 경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가 각각 전년 대비 6700명, 4900명 증가했는데, 이는 임금근로자가 퇴직·실직후 창업을 하거나 자영업자가 직원을 해고한 뒤 가족 또는 무인주문기를 활용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0~11월 중 실업급여 지급액은 광주가 249억9000만원, 전남이 229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0.8%, 37.5% 증가했다. 지급건수도 광주가 1만7000건, 전남이 1만6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8.2%, 30.9% 증

가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휴업·휴직이 확대되고 노인일자리 사업 등이 중단되면서 지난해 광주와 전남지역 일시휴직자 규모는 각각 2만 7000명, 2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160.0%, 118.5% 폭증했다. 경제조사팀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고용 충격이 업종별, 계층별로 비대칭적인 영향을 주면서 30대 청년층과 비정규직, 대면서비스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고용 안정성이 크게 떨어졌다"며 "고용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상시 방역체계 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 직접적인 대책과 함께 비대면산업 육성 등 일자리의 양적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정기자

구례군, 신제품 배 생산단지 육성사업 접수

구례군이 농업소득을 다각화하고 특정 시기에 일손이 부족한 현상을 막기 위해 '신제품 배 생산단지'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구례군은 소비트렌드 변화에 맞는 배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을 2월 3일까지 접수한다. 이 사업은 소비자 기호에 맞는 국내 육성 신제품 배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능한 부지를 확보했거나 식재할 예정부지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구례군은 친환경농업을 저해하는 철축 재배농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번 사업에서도 철축 재배농지 소유자 및 경작지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다. 사업신청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군 홈페이지

농업소득 다각화와 일손몰림 방지 위해 신제품 배 생산단지 육성 내달 3일까지 읍·면 농업인상담소서 접수...1개 농업인단체 선정

으로 관내 과수농가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올해는 1개 농업인 단체를 선정하여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신제품 도입 과원을 신규로 조성하고 기존 과원의 품종을 갱신하는 등 신제품 배 생산단지 2Ha를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신제품 묘목 식재, 관수·척시설, 우산식 지주 설치 등이 있다. 신청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구례군으로 되어 있는 농업인단체, 농업법인이다. 배 신규과원 조성비가 가

이지와 마을이장에게 배부한 사업신청 안내서를 참고해 오는 2월 3일까지 읍면 농업인상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시범사업을 통해 기존 품종과는 숙기와 품종 특성이 다른 국내 육성 품종을 보급하겠다"며 "홍수출하와 노동력을 풀림 현상을 완화하고 다양한 소비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배단지를 육성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구례=박진호 기자



따뜻한 대한 '겉옷은 잠시 벗어두고' 24절기 중 대한(大寒)을 맞이한 20일 전북 전주시 전주한옥마을 전주천변에서 시민들이 따뜻한 대한(大寒)을 즐기며 산책을 하고 있다.

심상찮은 외국인 확진, 우려스런 '검사 기피'

광산구서만 올 들어 외국인 13명 확진...검사율 1.4% 그쳐

광주지역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 국적 요양병원 종사자와 가족 등이 코로나19에 잇따라 감염된 가운데 선별검사 기피 현상마저 뚜렷해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가 광산구에서만 올 들어서 13명이나 발생

했다. 이들 모두 공교롭게도 우즈베크 국적자들로, 가족 간 n차 전파에 따른 집단 감염 사례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지난 18일부터 광산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1922명과 외국인 근로자 5702명, 외국인 집성촌 거주자 5455

명 등 모두 1만3079명에 대해 선제적 전수검사를 시행째 진행중이다. 그러나 문제는 검사 기피 현상으로, 이날 현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인원은 186명으로, 전체 검사 대상자의 1.4%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는 심층역학조사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는 데다 외국 국적자 특성상 정보 전달에 어려움이 있거나 차별을 우려해 선뜻 검사소를 찾지 못할 수도 있다고 판단, 선제검사 기간을 무기한 연장키로 했다. 임형택기자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